

쭈쭈가무시증

예방에서 치료까지



➔ 최고, 최선의 쭈쭈가무시증 예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.

- 야외 활동 및 야외 작업 시 긴팔, 긴바지, 양말, 신발 등을 꼭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한다.
- 풀숲에 들어가지 않는다.
- 풀위에 앉거나 누울 때는 돛자리 등을 이용한다.
- 옷을 풀밭에 놓지 않는다.
- 진드기 기피제를 활용한다.
- 야외 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입었던 옷은 세탁한다.
- 야외 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목욕한다.



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?

Q 쭈쭈가무시증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에서만 발생하나요?

➔ 아닙니다.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뿐만 아니라 털진드기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Q 쭈쭈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니까?

➔ 털진드기 유충은 성장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섭취해야 하는데, 이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는 가을철입니다. 그리고 이 기간은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 수행이 활발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. 따라서 쭈쭈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.

Q 쭈쭈가무시증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가요?

➔ 아닙니다. 쭈쭈가무시균은 주로 털진드기를 매개체로 하여 전파되므로 인플루엔자나 SARS와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는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환자나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.

Q 털진드기에 물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나요?

➔ 아닙니다.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는 보통 10-12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쭈쭈가무시증의 증상은 이러한 시간 경과를 거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.

Q 한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나요?

➔ 그렇습니다. 흔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전에 감염 경력이 있더라도 쭈쭈가무시증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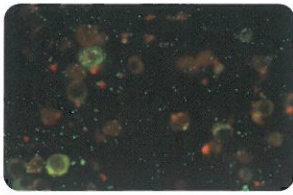


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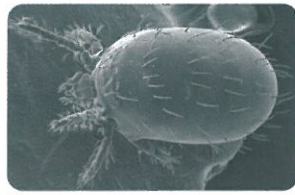
감염병 신고 및 질병 관련 정보 안내 **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**

➔ 찰찰가무시증이란?

- 찰찰가무시증은 찰찰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 때 그 균이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.



원인균: 찰찰가무시균



매개체: 털진드기



숙주: 들쥐 (등줄쥐)



우연숙주: 사람

➔ 야외에서 풀숲과 접촉 가능한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- 풀숲에서의 야외활동
- 야생식물 채취
- 감따기 및 밤줍기
- 캠핑 또는 등산
- 농작업 지원
- 주말농장 가꾸기

➔ 주요 증상을 인지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➔ 주요 증상

- ➔ 감기와 비슷한 고열, 오한, 기침, 두통 및 피부발진, 림프절 비대
- ➔ 털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가피(검은 딱지) 발생

➔ 증상 발생 시기

- ➔ 야외 활동 및 야외 작업으로부터 10 - 12일 지난 후에 증상 나타남.



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 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나 가피(검은 딱지)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꼭 치료 받아야 합니다.
조기치료 시 완치 가능, 치료받지 않는 경우 사망률 30-60%.